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 새벽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 새벽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3월 19일 (제119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현상유지론 안 돼!

학창시절, ‘낙제만 안 하면 돼.’ 하는 놈치고 낙제 안 하는 놈을 못 봤다. 운전면허시험 때도 ‘제발 커트라인에만 걸려라.’ 한 사람들은 대개 커트라인 아래로 낙방했다. 장사를 할 때 ‘현상유지만 하면 돼.’ 하는 사람들은 조기 폐업한다.

자고로 고양이를 그리겠다 하면 쥐박에 못그린다. 호랑이를 그릴 마음을 가질 때 고양이를 그린다. 무엇을 하든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충분히 갈 수 있듯이.

‘나는 한 시간만 기도해야지.’ 하면 절대 한 시간 못 채운다. 45분쯤 되면 졸이 쏙신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고 시계만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 3시간 기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은 거뜬하다. 그래서 나는 가끔 단에서 ‘한 시간 기도한 다’라고 공포를 하는 것이다. 실제 한 시간을 안해도 그래야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니까.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생도의 아내에게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왕하4:3)라고 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적당히’, ‘알맞게’라고 말하면 최대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말라.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연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주말이면 자주 주례를 가는데, 아주 일찌감치 출발해서 주변 카페에서 대기한다. ‘한 시간이면 가는데...’ 했다가는 주말에 길이 막혀 결혼식을 망칠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하는 심정으로 신앙 생활하다가 정말 큰 일 당한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꼴을 당한다. 그들이 준비를 안 했던가? 그들도 준비했다. 다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량이라고 판단된 만큼만 준비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한 것이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었지 않았는가. 예상 손님 대비 적당량만 준비해서 그렇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다.

‘적당히’는 낭패를 낳는다. ‘넉넉히’, ‘충분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성공과 행복도 넘친다.

이 땅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땅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생각하며 살라!”

목사님은 이번 2023 교단 교역자 세미나에서도 모든 제자들에게 주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마치시며 날 계란 하나를 깨서 입에 넣으신 후,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우자.”고 역설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제 신앙 인생, 아니 목회 인생에 가장 큰 흥분과 도전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게 하지?’ 하며 책임도 자신이 지려 하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쓰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무서운 책망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로 내어쫓으라’ (마25:30).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쓰지 않고 묻어두는 자는 무익한 종이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내몰려 역을 하다가 이를 갈며 울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

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께서 계속 나를 쓰실 거 아닙니까?

나는 편안하기를 거부한 목사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누리며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일할 겁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내 꿈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며, 보좌에 앉아 열두지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한



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내 전 인생이 뒤집힌 겁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이끌려 당시 인복유치원 이사장이던 내가 새벽같이 유치원으로 달려나가 시력이 매우 나빴던 유치원 관리선생님을 붙잡고 2시간 넘게 귀신을 쫓아 결국 칠판에 쓰여있는 월중행사표를 줄줄 읽게 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평신도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분은 나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명령하신 그분을 믿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그분이 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무익한 종’이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얼마나 역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나에게 임한 권능이 떠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고 딱 뜻을 박아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 다시 기도로 깨끗이 닦아와

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

이 꿈이 나를 이끎니다. 이 꿈이 나를 이끌기에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나를 닮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꿈꾸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오늘의 계란을 먹어치우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꿈꾸며, 오늘 비록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부도내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 세미나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14~18)



매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먼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열 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는 네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대로 한 달란트만을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에는 대장균만 득실거린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기 때문에'(마25:16) 갑절로 이익을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기에'(마25:17) 이익을 낸 것입니다. '바로 장사하여'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장사에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서 그러했다고 고백했습니다(마25:24~25).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네가 신중하게 결정했구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주인이 분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고 바깥 어둔 데로 내어 쫓으라고 했고(마25:30), 그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인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런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롬9:18),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에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고 하셨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에만 충성하라 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를 내면서까지 적극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거나 거짓 선지자의 말에 휘둘리는 교회에게는 그런 당부를 하지 않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네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다는 말씀입니다. 네 사고, 네 행동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는 말씀에 빗대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자 늦은 시간인 줄 알

지만 안면 물을 수 없고 친구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늦은 밤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

는 친구가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못 들은 체했습니다. '곧 돌아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세게 문을 두드립니다. 이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자 열른 주는 게 낫겠다 싶어 그는 일어나 보리떡을 주어 보냅니다.

주님은 이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11:8)고 말씀하십니다. '강청함', 곧 물러날 것 같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눅11:9~10)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리고, 목청을 높여 구하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목이 터져라 "예수여~" 부르니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곳에 소경이 바디매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바디매오만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10:52).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정말이지 용신할 틈도 없을 지경이었습

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저

히 예수님이 결으로 갈 수 없자 고민하다가 지붕을 뚫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붕을 뚫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리는 자도 있었을 테고, 뚫을 때 먼지도 나고 소음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로 이리 어수선하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니 머리 위로 먼지도, 조각도 떨어졌을 법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며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막2:5).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하고 있으니 12년 동안 아파 기력이 쇠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생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가서 못 자락을 만져 나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

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8~39). 야고보 사도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적극적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처럼, 문제해결을 위해 안하무인인 재판장을 매일 찾아간 과부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를 갖느냐, 소극적인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한 가전회사에서 직원 두 사람을 알래스카로 보냈습니다. 냉장고를 수출하기 위해 시장조사 차 보낸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일 년 내내 사방이 얼음으로 뒤덮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냉장고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도, 사야 한다는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두 직원은 조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직원의 보고서입니다.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음식이 상할 걱정이 없습니다. 냉장고 없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보고 내용은 달랐습니다. "알래스카는 너무 추워서 음식이 쉽게 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상심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 아무도 냉장고를 사지 않았으니 무진장 팔 수 있습니다." 그 가전회사는 후자 직원의 보고서를 믿고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수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쇠가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에 적극적으로 다가갔기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기에 딸이 고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매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십시오.

지난주 이시대 목사가 4부 은사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오늘 나도 귀신을 내쫓고 말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한 듯 보였습니다. 단단히 기도 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손을 통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마켓 타이밍으로 손실을 줄여라

내가 할게!

워렌 버핏은 매일매일의 증시 변동은 특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는다고 되풀이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은 누군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확인하는 장소일 뿐이다. 나는 그저 사업에 투자하듯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든 그가 의도한 것이든 버핏은 기민한 마켓 타이머(market timer-주가 조정시 매수를 기다리는 투자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가주를 발견해서 투자하는 그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나 그의 성공요인 중 일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장에 떠도는 위험을 재빨리 감지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기회를 찾아 이익을 얻는 데 있었다는 것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습니

20세기의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침체기가 와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대신 그들은 회복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활황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보유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 못지않게 나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코카콜라, 가이코, 질레트와 같은 우량주를 매수하여 보유하기로 결정했던 것만큼이나 어떤 종목을 언제 매도 했는지도 수익창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버핏이 채권에 장기간 투자할 때보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채권수익률이 상승해서 주식의 이익수익률을 따라잡을 때 증시는 일반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PER의 역수인 이익수익률이 채권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에 다다를 때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평가하고 투자에 뛰어듭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침체기 동안(PER가 가장 낮을 때) 매수하고 경기활황이 최고조에 달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PER가 가장 높을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일단 매수한 종목은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매수 전에 기업과 산업, 그리고 산업 전체를 폭넓게 살펴보고 경제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평가하고 그러한 펀더멘털이 높은 주가를 지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계가 침체기를 겪을 때 버핏은 곧 수익성이 개선되리라는 것을 알고 때를 기다리며 많은 종목을 매집하여 보유하고, 또한 호경기가 왔다고 해도 곧 경기후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항상 신중하게 매도를 계획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인 해외선교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선교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기도와 물질을 심으며 전 세계 지구촌을 천국으로 대탈출시키시려는 목사님과 함께 힘껏 전도하는 2023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경 권사

어느 마을에 ‘모두’, ‘누군가’, ‘아무나’, 그리고 ‘아무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 ‘모두’는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를 보고 ‘누군가’가 매우 화를 내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두’는 ‘누군가’가 그걸 하겠거니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결국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매주 예배시간 전에 주의 종들과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

“누군가 할 것이다 착각 말고 네가 점검하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맞다. ‘누군가 하겠지.’ 하면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되고, 결국은 ‘아무도’로 연결되어 일이 안 되고, 그러치게 한다.

사람을 응급조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가장 먼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주변 사람에게 ‘빨리 119에 전화해주세요.’ 하면 안 된단다. 딱 지목해서 ‘거기 핑크 색깔 옷 입으신 분이요, 지금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란다. 왜냐?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사람이 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안 했다고 투덜대지 말고, 누군가 안 했다고 탓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네가 직접 점검하라. 설마는 꼭 사람을 잡으니까.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교단소식 ::

2023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입학 및 개강예배

“주님 내 곁어온 길 뒤돌아 생각하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외롭고 고달파 외롭고 고달파~”

목회 38년을 뒤돌아보며 이초석 목사님께서 작시하신 것이다. 그 길이 절대 녹록지 않았음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3월 14일, 노량진 교육관에서 2023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입학 및 개강예배가 열렸다. 이날 신학원 학장인 이시대 목사님은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목사님은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이요, 눈 덮인 산야 같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작시하신 것처럼 무척 고달프고 외로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항상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든 길인데, 그

렇게 외로운 길인데 왜 또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걸까요? 그분은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 권력보다 주의 종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그분은 아십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냐?’ 묻는다면 나 역시 서슴지 않고 우리 목사님처럼 대답할 겁니다.

자원하여 왔든, 등 떠밀려 왔든 여러분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려면 철저히 자신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인격을 접어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넉넉히 가게끔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면류관과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상의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이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는 올림픽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 받을 메달과 상금과 주어진 혜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하여 그와 싸우려고 했지만, 아울러 승리했을 때에 받을 혜택도 생각했고 쟁겼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삼상17:26) 하고 물었고, 백성들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재물도 주고, 세금감면도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안 한다. 나는 그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떼며 보좌에 앉아 심판할 거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수없는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주리며 햇빛으면서도 그 길을 간 것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빌3:14)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십자가를 통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과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가 당신 앞에 복종케 되는 권세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시고 바라보셨기에 수치스런 십자가를 능히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히12:2).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겠습니까(롬8:18)?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런 꿈을 주셔서 험착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신학도로서 이 길이 절대 평탄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꿈을 확실히 부여잡는다면 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단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되어 이 교단을 총괄하게 될 것이고, 이끌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진합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목사님의 기대하심이 큼니다.”

2023년 신입생은 총 10명으로 소수 정예부대다. 이 중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마틴 루터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신묘수 전도사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

주가 일하시네

요즘 우리 교회는 전도의 열기가 뜨겁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총회장목사님께서도 4부 은사집회를 온 힘 다해 인도해주시기 때문이다.

얼마 전 청 · 장년부 예배의 총동원이 선포되었다. 목표 인원이 있었고, 성전을 채워야 했다. 어떤 영혼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하며 명단을 적어 내려가는데 걱정도 되고 압박도 느껴졌다. 누가 주는 압박도 아닌데 스스로가 힘겨운 느낌이 들었다. 안 되겠다 싶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메시지를 주셨다. 내가 일한다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내 임무(?)는 ‘가까운 이들에게 연락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평소 연락을 하지 않았던 터라 부담은 되었지만 커피를 한 잔 원샷하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두들 내 연락을 좋아해주었고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전화를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통화하길 원했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마음을 내어주고 어려움도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도 하게 되었다. 전화를 끊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다. 그래서 더욱 용기를 얻고 현

재 우리 교회에 다니지만 소속이 되어있지 않은 친구들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연락을 하는데 예전 생각이 났다. 20대 나의 뜨겁던 시절, 정말 열심히 전도했었다.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한 친구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었고, 졸업 후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대부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모두 교회에 다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각자 사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는 전도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데 팀원들에게도 연락이 왔다. 목표 인원이 몇 명이나고 작정기도 하겠다는 팀원도 있었고, 함께 합동작전을 하여 남편을 이끌어내보자는 팀원도 있었고, 총동원 예배 때 남편이 일을 해서 아직 아기를 데리고 혼자 올 수 없는데 택시를 타고 오겠다고 하는 팀원도 있었다.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 날은 다가고 마음에 부담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다.

총동원 예배가 있기 며칠 전쯤 유초등부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다. 심방을 다녀오셨는데 청 · 장년부 예배에 가기로 한 영혼이 있으니 잘 챙겨주라는 내용의 통화였다. 그래서 나와도 통화를 했고 오기로 하였다고 함께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하던 도중 전도사님께서 그 주에 심방 다녀오신 가정들이 있는데 심방 가실 때마다 다들 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신기하고 운명에 전율이 느껴졌다. 내가 연락했던 가정들에 심방을 다녀오시다니. 전도사님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서서 일하고 계셨다. 예배에 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배에 오지 않았을 수 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후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한 번 가보자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2023년 이제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에 더욱 힘써보아야겠다!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세상에 주어진 원칙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원칙 중 하나가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하면 언젠간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간 성적도 오르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꾸준히 기도 많이 할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겠다.

이 원칙만 있다면 헛갈리지 않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 텐데, 문제는 큰 노력 없이 뭔가를 거두게 될 때 생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도 있고, 악한 것들이 준 미끼일 수도 있다. 어찌 됐든 노력 없이 뭔가를 얻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그것들을 다시 기다린다. ‘이 정도면 되겠지? 예전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으니 말이야.’ 등등 스스로 노력의 한계를 그으며 다시 기적을 기다린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뚫으면 반드시 뚫린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애써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을 지금의 자리에 서게 한 것이 기도와 노력 두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치도록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준비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루에 5시간 공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을 성적으로는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게 세상에 정한 하나님의 노력의 법칙이 아닐까 싶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그러할 때, 생각지 못한 기적과 같은 플러스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불어 주실 것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사람을 살리는 말

교회 근처 좁은 골목에서 젊은 여자가 홀로 발을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제가 지나가자 몸을 벽 쪽으로 돌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던 터라 얼굴은 본 적 있는 교회 자매였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을까 안쓰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위로한다고 다가갔다가 괜히 더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며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그 자매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 믿기 전 그의 과거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과거를 이야기했거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생각한 누군가에게 과거를 털어놓았을지 모릅니다. 그 자매의 과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군가 험담하며 퍼뜨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자매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던 모습과 교회에서 충성하며 봉사하던 모습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그 험담이 몹시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고 과장되었을지도 모를 그 소문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매의 현

재 모습을 칭찬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신원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자매를 칭찬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자매와 친분이 없는 사이인데도 목사님의 칭찬이 얼마나 반가운지 고개를 끄덕이며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칭찬의 말을 통해 축 쳐져 있던 그 자매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와 지인 A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A가 이전에 B에게 입었던 은혜를 회상하며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B와 마주쳤을 때, A가 했던 진실한 말을 그대로 전하며 B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B는 A에 대해 작은 오해가 있어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전달한 그 말에 바로 오해를 풀고, A와 B는 이전보다 관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후 A는 B와 관계가 회복되어 그 말을 전한 저에게 고마워했고, B는 A의 말에 동조하며 자신을 칭찬한 저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을 향해 늘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창12: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라고 가르치시고, 그 집이 평안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0:12~13). 심지어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롬12:14).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도 죽이고, 동조하여 퍼뜨리는 사람도 죽이고,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 죽이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살리고, 동조하여 전하는 사람도 살리고, 대상이 된 사람도 살립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흠 많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영혼임을 잊지 말고, 축복의 말,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로 우리 말을 늘 듣고 계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4:29).

정명관
v-777@naver.com

